



우리시대 참스승

선단초등학교 교장 허효만

無所有 실천하는 삶 가꾸고 싶다

포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관리자로서 부임하여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사회에 참교육 실천현장과 바른 사도상을 정리해 나가고자 한다.

(편집자주)

오는2월21일 정년퇴임식을 앞둔 선단초등학교 허효만(63·사진) 교장은 1968년 연평도에 있는 연평초등학교에 첫 부임하여 38년동안 초등교육을 위해 헌신해왔다. 오진균·광주군·성남시·여주시·안산시·김포시를 거쳐 포천에서 교직생활을 마치고 뒤로 교장은 학생들에게 실력보다는 인성(人性)을 강조했다. 실력을 쌓는 것은 본인이 공부에 대한 필요를 느꼈을 때 해야 하는 것이며 75점이상만 받으면 큰 문제가 안된다. 75점이하로 떨어지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75점 이상은 받



룬 꿈에 대한 아쉬움과 스스로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풀이한다. 김포초등학교, 김포중학교, 김포고등학교를 졸업한 허 교장은 교장으로 부임하기 전 교육에서 학교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사람이 사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허 교장은 모든 일을 교사들과 열린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 최근 사학법개정 공방에 대해 이 또한 대화부족임을 지적한다. 열린 대화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상태로 바꾸어 놓는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열린 대화를 통해 지적육구를 충족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교장의 아집과 독선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 허 교장의 이같은 교육철학은 선단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모두 4차에 걸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책으로 묶어 후

“사람이 사는 學校를 만들고 싶다”

이야 한다.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 배고픔을 느껴야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게 허 교장의 교육철학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다운 생활'이라고 강조한다. 허 교장은 따라서 학교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은 물론 사람들이 학교에 오면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학교 숲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허 교장은 성남에서 근무할 당시 교사 체육대회 계주에서 뛰어난 순발력으로 학교에서 운동용 재일 잘한다는 교사를 앞서자 당시 교장선생님이 육상부를 맡아줄 것을 부탁한 것이 인연이 되어 부임하는 학교에 운동부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

농구선수인 김유택 선수도 당시 성남에서 근무할 당시 학교 육상부에서 만났다. 따라서 허 교장은 축구부, 야구부등 학교 엘리트체육에 남다른 노하우를 갖고 있다. 포천에 부임하여 지난 5년 6개월 동안 느낀 것은 "포천사람들은 부드럽고 경쟁이 심한 곳은 아니다"라며 "퇴임 후에도 포천에서 살고 싶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잘해 줄수록 지역주민들도 매우 잘 대해 주고 있다고 한다. 법정스님이 쓴 '무소유'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는 허 교장은 퇴임식에 오는 손님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한다. 다음아닌 것이다. 시의 제목은 허심(虛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마음. 이제 들고 떠나려하니 만감이 교차하는구나. 어쩌피 허심이 행복인 것을 왕망산 기슭에서" 이 시에는 그동안의 교직생활동안 못다 이

임교장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퇴임식도 다르게 할 계획이다. 그동안 받기만 했는데 뭔가 주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퇴임 후에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나 둘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법정스님의 일화를 소개하는 허 교장의 마음이 퇴임 후에 생활에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법정스님이 하루는 먼길을 떠나기 위해 짐을 떠나 하나씩 짐을 가다가 문득 절에서 기르고 있던 난 화분 두 개가 생각이 나 다시 돌아와 그 화분에 두고 다시 나왔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법정스님은 난 화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한다." 허 교장은 이 일화를 통해 무소유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퇴임 후에는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겠다고 한다. 허 교장은 부인 정수자 여사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유암스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2005’

특기·적성교육활동 종합 학예 발표회

유암초등학교(교장 송종길)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6시 다목적학습관에서 '유암스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2005'라는 주제로 특기·적성 교육활동 종합 학예 발표회와 특기·적성 교육활동 결과물 전시회를 개최했다. 유암초등학교는 '가르침에 신바람을 내고 언제나 땀뻑하게 어디서나 향기롭게 창의적으로 배우는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유암스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2005'를 운영하고 그 결과물을 이날 발표하고 전시했다. 미술부(지도교사 김선영) 70명이 내가 꿈꾸는 세상, 컴퓨터부(지도교사 전지연) 70명이 지식사회의

영양소, 학부모 7명이 나와 함께 라는 주제로 작품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영어노래 & 회화, 리코더 합주, 피아노연주, 연극, 태권도시범, 중국어회화, 합창, 중국어연극, 중국어회화, 색스폰 연주, 수화 등의 발표회를 갖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마련한 유암초등학교 송종길 교장은 "이번 발표회를 통해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서로 자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 주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유암 어린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유암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6시 다목적학습관에서 '유암스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2005'라는 주제로 특기·적성 교육활동 종합 학예 발표회와 특기·적성 교육활동 결과물 전시회를 개최했다.

“특색 있는 학급교육과정 편성·운영한다”

초등 학급교육과정 워크북 강사요원 연수

경기도교육청 제2청(교육감 김진춘)은 학교와 학급의 실정을 반영한 질 높은 학급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현장 교원들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일 의정부시 소재 새말초등학교에서 제2청 관할 8개 지역교육청 학급교육과정워크북 연수 강사 100명(교사73, 교감 19, 장학사 8)을 대상으로 학급교육과정 워크북 강사요원 연수 개강식을 가졌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연수는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게 될 초등학교 학급교육과정 워크북 연수의 강사요원을 양성하는데 1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학급교육과정 목표 설정 ▶학급교육과정의 편제(주5일수업제 포함) 및 시간 운영 계획 수립 ▶수준별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교과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안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효율적인 생활지도 방법 ▶e-Learning 시대에 적



경기도교육청제2청은 지난 2일 의정부시 소재 새말초등학교에서 제2청 관할 8개 지역교육청 학급교육과정워크북 연수 강사 100명을 대상으로 학급교육과정 워크북 강사요원 연수 개강식을 가졌다.

급교육과정 길라잡이 III, '학급교육과정 워크북 III' 등의 교재를 개발 활용하여, 학교와 학년·학급의 특색을 반영한 학급교육과정을 실제로 작성해 보게 함으로써 연수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연수의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e-러닝 체제에 입각하여 길라잡이 및 워크북 연수 자료, 강의 핵심내용을 담은 PPT자료 등을 경기도교육청 제2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하여 지역교육청 강사요원들이 활용하도록 제공 할 예정이다. 이 연수를 마치면 이들 100명의 강사요원을 활용하여 지역교육청에서는 오는 16일부터 31일에 걸쳐 초등학교 교감과 교사 2천900여명을 대상으로 제 2단계 연수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이 연수는 현장 교사들에게 학교와 학급의 실정을 반영한 특색 있는 학급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기자 94spice@hanmail.net

운중성의 마뜩어따라하기. 17. 다들 널 쳐다보고 있어. You are making a scene here. 유이메이킹어씨인하여. *알고 있어요. I know that. 아이노우트. 18. 저는 여기에 아주 낯설거든요. I'm very stranger here around. 아이멤버위스초렘저하여여려운. *친구들을 사귀면 되잖아요. You need to make friends then. 유니투메이후렌스엔.

교사 탐구 31 영평초등학교 연구부장 이병태

“투철한 사명감과 뚜렷한 교육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교육과정을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아동 개개인의 성장과 학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교사”인 이병태(32·사진) 영평초등학교 연구부장을 만났다.



부산 청룡초등학교, 금정중학교, 용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산교육대학을 나와 1999년9월1일 영평초등학교에 교사로 첫 부임해 현재까지 영평초등학교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7년째 영평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교사는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학교로 가야 한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지난 6년 동안 영평초등학교는 학교 시설면에서나 학생들의 모습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이 교사는 특히 그 변화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긍정적인 변화는 이 교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한다. 특히 학생들의 변화는 놀랍다.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기졌다는 데 있다. 처음 부임할 당시만 해도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여 학생들에게 도움 줄 계획

영평의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자신감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사고자체에 자신감이 넘친다. 각종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영평초등학교 황인남 교장은 이 교사는 2005년 연구부장으로서 교육과정운영을 하면서 계획수립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 지역화된 학년별, 학기별 교육과정을 작성 운영했고 학급경영요목을 자체 제작 활용했으며 교내연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충실했다고 한다. 또 자연체험학습에 남다른 관심으로 학교 자연학습장 운영의 계획 및 구성, 각종 자연체험학습행사 및 활동에 남달리 노력하여 자연학습 활동의 바탕을 마련했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자연체험 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작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한 방법을 구안하여 학생들의 자연친화적 태도의 육성에 남달리 노력하고 있다. 이 교사는 특기·적성교육 담당교사로서 소인수 6학급의 어려운 실정에도 4개 부서(풀피리, 피아노, 컴퓨터, 영어)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ICT 교수-학습 활용 선도요원으로 ICT활용 연수 및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연수를 월2회 이상 실시해 영평초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했고 교사 상호간 장학활동을 활성화시켜 교수-학습 관련 질 향상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기본적으로 인성이 바로 서고 그 다음에 학력이다'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학력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성을 갖추면서 실력을 향상하는 어린이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심어 주는데 원칙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칭찬하여 주고 단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교사는 대부분의 신규 교사들이 의무연한을 마치고 떠나는 추세인데 떠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2~3년이면 떠난다는 사실을 싫어해서 떠나지 않았다"며 "계속 근무하다 보니 고향 같은 느낌이 들게 됐다"고 한다. 이 교사는 "正直"을 생활철학으로 삼아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함을 감추기 보다는 뽐내듯 밝히며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이 교사는 잠재적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강조한다. 학생들 스스로 실시하는 자율학습시간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치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쌓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특히 상대방의 단점을 내장점으로 보완하는 협동심을 길러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교육방법의 하나라고 한다. 이것을 교사의 강요와 주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파악하고 깨닫고 보충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이론을 세우기 위해 이 교사는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심리학을 전공해 부족한 아동들을 상담하여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친절, 질서, 예절, 청결의 생활화 프로그램 운영과 한자 급수 인증제의 운영, '영평 어린이 바른 생활 다짐' 시간 운영 등 어린이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안, 운영하여 학생들의 바른 생활습관 정착에도 남다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평소 창의적 학습운영으로 푸른 교실 꾸미기 및 교실 환경 구성에 있어 모범적인 학급 운영을 보이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화를 주도하여 영평초등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교사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동료교사들에게도 알려져 있다. 이같은 이 교사의 노력으로 2001년5월15일 20회 스승의 날에 포천교육장 표창을 받았고 2003년5월15일 22회 스승의 날에는 경기도교육청 표창, 2003년12월17일 수습실기대회 유공으로 포천교육장 표창, 2005년5월11일 과학탐구대회 심사위원으로 포천교육장 표창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7년이 되던 영평초등학교를 떠나야 하는 이 교사는 관내 다른 학교나 다른 지역의 학교 등을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포천교육 발전을 위해 젊은 신규교사들이 포천 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사회가 교사들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권주일 君 해사 합격 축하파티

밤나무집 권석호씨 동창들과 함께 권 군은 어렸을때부터 군인이 되어 싶어했다고 한다. 합격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권 군의 아버지 권석호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밤나무집에서 동창 권 군은 정교초등학교와 동남중학교를 나와 동남고등학교 심화반에서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학년 때부터 해군사관학교 진로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여 합격한 한편, 권 군은 오는 13일 진해에



권주일군 해군사관학교 합격축하파티에 참석 한 밤나무집 권석호 사장의 동창들. 있는 해군사관학교에 가입교하여 5 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정을 마치고 2월17일 정식으로 입교하게 된다. 이은이 주부명예기자단 총무

스키장에서 호연지기를 기른다 가산초 스카우트 스키캠프



가산초등학교 스카우트 대원 300명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28일까지 2박3일간 베이스타운 스키장에서 스키캠프를 개최했다. 가산초등학교(교장 김창성) 스카우트(지도교사 김용근) 대원 30여명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28일까지 2박3일간 베이스타운 스키장에서 스키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거

울방학의 신나는 추억으로 기억에 남을 만큼 재미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스키캠프에 대해 김창성 교장은 "예산이 확보되면 전교생이 체험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근 스카우트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베이스타운 스키장측에서 스키강습 외에 나머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스키캠프 기간동안 가산초등학교 김창성 교장, 김선욱 체육부장, 이태희 운영위원, 이명희 스카우트회장, 이선영 스카우트 총무, 이은이 어머니회장등이 방편해 참가학생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은이 주부명예기자단 총무